

크리킨디 편지 첫 번째.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드리는 늦은 인사”

안녕하세요. 박종원입니다.

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늦은 인사와 함께 그간의 소식을 짧게나마 전하려고 편지를 씁니다.

지난 2월 7일 총회에서 후보자 승인을 받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은평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며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또 회원활동을 하던 단체도 찾아가고, 학교 선생님도 뵙고, 선후배,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녹색당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녹색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들과 선거캠프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를 모아 선거를 치르자는 목표에 맞춰 서로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김원국 당원은 ‘지혜로운 올빼미’ 정책팀을, 손성실 당원은 ‘발 빠른 청마’ 홍보팀을,

그리고 이종호 당원이 ‘부지런한 꿀벌’ 회계팀을 맡기로 했습니다.

조민강 당원은 저와 함께 ‘코끼리와 까치’ 후보팀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사무관리 전반을 맡아줄 사무장과 선거운동을 이끌어줄 조직팀은 아직 공석입니다.

역할을 나누긴 했지만 각자의 역할에만 머무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일을 먼저 고민하고 주도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은 함께 의논하고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즐겁게 할 수 있고, 그게 또 우리 녹색당에 맞는 거니까요^^

현재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이면서 정책위원회 에너지분과 모임에서 활약 중인

이금재 당원님께서도 즐겁게 해보자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개인 업무로 바빠 얼굴 뵙기 힘들었던 고성진 당원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지난 금요일 홍보물 프로필 사진 촬영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선거를 만들자는 우리의 다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더 많은 힘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한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진행 상황에 대해 더 자주 소식 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바로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는 다짐으로 첫 걸음을 놓으려 합니다.

제 2, 제 3의 ‘후쿠시마’가 없도록, 더 이상은 밀양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며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선거사무소 계약을 마치고 입주까지 마칠 할 예정입니다.

선거사무소를 여는 첫 공식 모임은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 금요일에 열리는 그린파티를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즐겁고 유쾌한 만남, 은평녹색당 와인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먹고 마시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텅 비어 썰렁한 사무소 공간도 그날의 웃음과 마음으로 따뜻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꽃샘추위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날들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한 한 주 지내시길 바랍니다.

2013. 3. 9

은평녹색당 박종원 올림

크리킨디 편지는 답장을 기다립니다!

지난 총회에서 한 마리 크리킨디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겠다는 마음을 담아 ‘크리킨디 편지’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선거 치르는 동안 안부도 전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으로 힘과 지혜를 보태주세요. (글로 주셔도 좋고, 직접 얼굴 보며 주시면 더 좋고요^^)